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드는 제주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6년 11월 24일 -



제주특별자치도
농 업 기 술 원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제주산 국내 육성 골드키위-3면	과수연구과	제주일보
○	제주산 골드키위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확인-6면	과수연구과	삼다일보
○	제주산 키위, 캐나다 시장 문 두드린다-6면	과수연구과	한라일보
○	메밀 가공비 29% 줄고, 소득 44% 늘었다-2면	동부농업기술센터	제주일보
○	제주 메밀, 농가 자체 가공으로 경쟁력 제고-5면	동부농업기술센터	제주매일
○	제주 메밀, 농가 자체 가공으로 소득 43.7% 증가-6면	동부농업기술센터	한라일보
○	“토종씨앗 지원 확대…감귤 관측 결과 공개해야” -3면	농업디지털센터	제민일보
○	주간 농업농촌소식-6면	기술지원조정과	한라일보
○	농작물 재해보험 받기 어렵다-1면	-	제주일보
○	엘니뇨 영향 올 겨울 따뜻하고 눈·비 많다-4면	-	제주일보
○	브로콜리 가격 하락에 수급안정 대책 추진-2면	-	제민일보
○	비움의 농법으로 억대 농가 등극-9면	-	제민일보
○	“어떤 귤을 좋아하세요?” …과일에 취향을 입히다-5면	-	제주매일
○	제주시 노지감귤 소비지 직거래 안간힘-1면	-	한라일보
○	관광·농업·상권 동반 부진…제주경제 ‘경고등’ -1면	-	한라일보
○	양파 모종 심기 분주-3면	-	한라일보
○	제주 콩 등 수발아·곰팡이 피해 농업재해 인정-6면	-	한라일보

(제주일보: 2026년 11월 24일)

○ 제주산 국내 육성 골드키위-3면

제주산 국내 육성 골드키위 캐나다에 14t 시범 수출

제주산 국내 육성 골드키위가 외국에 시범 수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 한국키위수출, 애월농협,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 등과 협력해 국내 육성 골드키위 '감황'과 '스위트 골드' 14톤을 캐나다로 시범 수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범 수출은 국내 육성 품종의 캐나다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업기술원은 그동안 국내 육성 골드키위 재배 농가 22곳을 수출농가로 육성하고, 장거리 운송에 대비한 품질관리 기술을 보급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장거리 운송 과정에서 과실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에틸렌 작용 억제제인 1-MCP를 활용한 저장기술을 생산자단체에 이전했다.

수출에 참여한 애월농협과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은 이 기술을 현장에 적용해 저장·유통 과정의 품질 유지 효과를 실증하고 있다.

11. 24.
제주일보 3

(삼다일보: 2026년 11월 24일)

○ 제주산 골드키위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확인-6면

제주산 골드키위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확인

道농기원, 국내 육성 품종 '감황'·'스위트골드' 14t 캐나다 시범수출

제주에서 키운 키위가 해외 수출길에 오른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국내 육성 골드키위 '감황'과 '스위트골드' 14t을 캐나다로 시범수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범수출은 국내 육성 품종 키위의 캐나다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며 수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이를 위해 그간 국내 육성 골드키위 재배농가 22곳을 수출 농가로 육성하고 장거리 운송에 대비한 품질관리 기술 보급 등의 준비를 해왔다.

장거리 운송 과정에서 과실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에틸렌 작용 억제제를 활용한 저장 기술을 생산자 단체에 이전했다.

시범 수출에 참여하는 애월농협과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은 이 기술을 활용해 저장 및 유통 과정의 품질 유지 효과를 실증하고 있다.

농업기술원은 이번 시범 수출로 캐나다 현지 유통 환경과 소비자 반응을 파악, 제주산 골드키위의 시장성 및 수출 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음 달 중에는 현지 홍보 행사를 열어 '감황'과 '스위트골드'를 알리며 소비자 인지도도 높인다.

김태균 제주도 농업기술원장은 "이번 시범 수출이 제주산 국내 육성 골드키위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농가 육성 및 품질관리 기술 지원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1. 24.
삼다일보 6

이정민 기자 73jmlee@sa

(한라일보: 2026년 11월 24일)

○ 제주산 키위, 캐나다 시장 문 두드린다-6면

제주산 키위, 캐나다 시장 문 두드린다

국내 육성 품종 감황·스위트골드 14t 시범수출

제주에서 생산한 국내 육성 키위가 캐나다 수출길에 오른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제주산 키위의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3일 국내 육성 골드키위 '감황'과 '스위트골드' 14t을 캐나다로 시범수출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한국키위수출, 애월농협,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 등이 협력해 추진한 이번 시범수출은 국내 육성 품종의 캐나다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농업기술원은 그동안 국내 육성 골드키위 재배농가 22곳을 수출 농가로 육성하고, 장거리 운송에 대비한 품질관리 기술 보급 등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해 왔다.

장거리 운송 과정에서 과실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에틸렌 작용 억제제를 활용한 저장 기술을 생산자단체에 이전했다. 수출에 참여하는 애월농협과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은 이 기술을 현장에 적용해 저장·유통 과정의 품질 유지 효과를 실증하고 있다.



제주에서 생산한 국내 육성 골드키위인 제주산 감황과 스위트골드가 23일 캐나다에 시범 수출됐다. 제주도농업기술원 제공

농업기술원은 이번 시범수출로 캐나다 현지 유통환경과 소비자 반응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산 골드키위의 시장성과 수출 확대 가능성을 검토한다. 12월 중에는 현지 홍보 행사도 열어 감황과 스위트골드의 현지 소비자 인지도 높이기에 나선다.

11. 24.
한라일보 6

문미숙기자 ms@hanila.com

(제주일보: 2026년 11월 24일)

○ 메밀 가공비 29% 줄고, 소득 44% 늘었다-2면

메밀 가공비 29% 줄고, 소득 44% 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황금미소' 등 우량품종 보급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는 '잡곡 생산 밸리 구축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메밀을 농가에서 직접 가공한 경우 가공비는 28.6% 줄고, 소득은 43.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는 국내 메밀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주요 산지다.

국산 메밀의 안정적인 생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황금미소', '양절' 등 국내 육성 우량 품종 보급과 재배 기계화가 추진되고 있다.

황금미소는 쓰러짐에 강하고, 기계 수확에 적합하며, 종실(씨앗) 수량도 양절보다 21% 많아 생산성 향상에 유리하다.

센터는 지난 2월부터 1억원을 들여 국내 육성 메밀 품종 재배 농가에 맷돌제분기와 금속제분기, 전동 흔들채 등 가공장비를 보급하고, 농가가 메밀을 직접 가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 결과 외부 위탁 때 1kg당 7000원이던 가공비가 자체 가공 도입 후 5000원으로 28.6% 줄었다.

또 10a(1000㎡)당 메밀 생산량 80kg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자체 가공 시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 경영비는 위탁 가공 때보다 17% 감소했고, 소득은 14만원 늘어 43.7% 높아졌다.

맷돌제분기는 기존 방식보다 작업 시간이 2배가량 더 걸리지만, 순도 높은 메밀가루를 자체 생산할 수 있어 품질 차별화와 가공상품 다양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센터는 보고 있다.

센터는 앞으로 가공장비의 효율적인 활용과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지역 메밀의 상표화로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진유한 기자

11. 24.
제주일보 2

(제주매일: 2026년 11월 24일)

○ 제주 매밀, 농가 자체 가공으로 경쟁력 제고-5면

제주 메밀, 농가 자체 가공으로 경쟁력 제고

가공비 28.6% 감소·소득은 43.7% 증가

농가가 메밀을 직접 가공하면 가공비 부담은 줄고 소득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장비 도입으로 제주 메밀 상품도 다양해질 전망이다.

제주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잡곡 생산 밸리 구축 시범사업' 추진 결과 농가에서 메밀을 직접 가공할 경우 가공비는 28.6% 줄고 소득은 43.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국내 메밀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주산지다. 메밀의 안정적인 생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황금미소', '햇살미소', '양절' 등 국내 육성 우량 품종 보급과 재배 기계화가 추진되고 있다.

동부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월부터 국내 육성 메밀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에 맷돌제분기·금속제분기·전동흔들채 등 가공장비를 보급했다.

농가가 메밀을 직접 가공한 결과 외부 위탁 시 1kg당 7000원이던 가공비는 5000원으로 28.6% 낮아졌다.

10a당 메밀 생산량 80kg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자체 가공 시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 경영비는 위탁 가공보다 17% 줄었다. 소득은 14만원(43.7%) 늘었다.

맷돌제분기는 기존 방식보다 작업시간이 2배가량 더 걸린다. 그러나 순도 높은 메밀가루의 자체 생산이 가능해 품질 차별화와 가공상품 다양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동부농업기술센터는 가공장비의 효율적 활용과 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 지역 메밀의 상표화로 부가가치를 높일 구상이다.

11. 24.
문 제주매일 5

(한라일보: 2026년 11월 24일)

○ 제주 메밀, 농가 자체 가공으로 소득 43.7% 증가-6면

제주 메밀, 농가 자체 가공으로 소득 43.7% 증가

국내 메밀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제주 메밀을 농가에서 직접 가공한 결과 가공비는 28.6% 줄고 소득은 43.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잡곡 생산 밸리 구축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육성 메밀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에 맷돌 제분기, 금속제분기, 전동흔들채 등 가공장비를 보급한 결과 외부 위탁 때 1kg당 7000원이던 가공비는 자체 가공 도입 후 5000원으로 28.6% 줄었다.

또한 10a(1000㎡)당 메밀 생산량 80kg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자체 가공 시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 경영비는 위탁 가공보다 17% 줄었으며, 소득은 14만원 늘어 43.7% 높아졌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11. 24. 한라일보 6

(제민일보: 2026년 11월 24일)

○ “토종씨앗 지원 확대…감귤 관측 결과 공개해야” -4면

“토종씨앗 지원 확대…감귤 관측 결과 공개해야”

농수축경제위원회

여성농민단체 지원 예산 삭감

하성용 “민간 보전 지원 부족”

임정은·강충룡 “감귤조사 공개”



강충룡 위원장



하성용 의원



임정은 위원

제주지역 토종씨앗 보전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감귤 생산량 관측조사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기상 악화에 따른 감귤 품질 저하 우려가 커지면서 최신 생산량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3일 제4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주도 농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 등을 대상으로 2027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하성용 의원(안덕면)은 제주 토종씨앗 보전활동을 이어온 여성농민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이 축소된 점을 지적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40여종의 제주 토종씨앗을 보전하고 매년 가을 추수한마당을 열어 도민들에게 씨앗을 나누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내년도 관련 행사 예산은 올해보다 절반가량 삭감됐으며, 사업 성과평가에서도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 의원은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토종씨앗 보전과 보급을 민간단체가 담당하고 있는데도 예산을 대폭 줄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이에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예산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귤 생산량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대천·중문·예래동)은 최근 잦은 비로 감귤이 나무에서 썩거나 낙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실제 상품 생산량이 기존 전망보다 줄어들 가능성을 제기했다.

농업기술원이 여름철 조사에서 발표한 올해 감귤 예상 생산량은 44만3000t이다. 그러나 11월 실시한 3차 관측조사 결과는 외부에 발표하지 않고 내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있다.

임 의원은 “잦은 비로 감귤이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최신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충룡 농수축경제위원장(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도 “수확기에 가까운 11월 조사 결과가 오히려 실제 생산량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생산량을 둘러싼 혼선을 줄이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태균 제주도농업기술원장은 “현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영호 기자

11. 24. 제민일보 4

(한라일보: 2026년 11월 24일)

○ 주간 농업농촌소식-6면

주간 농업농촌소식

주요 농작물 관리요령 및 병해충 방제정보를 안내합니다

□ 노지감귤

○ 수확 7~15일 전까지 부패방지제(저장병약) 살포
(농약별 안전사용기준 준수)

※ 비가 내릴 경우 3일 이상 건조 후 수확하며, 수확 후 3일 정도 예조

□ 양배추

○ 수확: 구가 단단하고 탄력이 느껴질 때, 외엽 2~3매 남겨놓고 수확

※ 비 온 직후 수확할 경우 곰팡이나 세균에 의해 부패가 가속되므로 주의

□ 브로콜리

○ 병해 관리: 잦은 강우로 인한 검은무늬병·검은썩음병 확산 우려

- 포장 내 배수로 정비, 초기 병반 발견 시 등록된 살균제를 7~10일 간격 2~3회 살포, 감염된 식물체 제거 등

○ 수확: 꽃봉오리 작은 꽃들이 쌀알 정도 크기가 되면 즉시 수확

- 수확 시 꽃대길이는 15㎝ 내외, 잎은 4~5개 붙여서 수확

※ 비 온 직후 수확할 경우 곰팡이나 세균에 의해 부패가 가속되므로 주의

○ 수확 후 6시간 이내 예냉처리 후 온도 0℃ 상대습도 95% 이상인 곳에서 저장

□ 시설하우스 일상점검을 통한 화재 예방

○ 시설하우스 화재는 대부분 전기와 화기취급 부주의로 발생되고 있음

○ 난방기, 보일러, 전선, 유류배관 등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정비) 및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함

- 난방기 및 보조 난방 사용 시 주위 가연성 물질이 없도록 조치
- 노후화된 전기 시설 점검 및 교체
- 절연테이핑, 전기시설 점검 및 교체
- 콘센트, 접점, 분전반 내부 등 미세먼지 제거
- 난방기 주변에 소화기 배치 및 사용요령 숙지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760-7530, 2)

11. 24. 한라일보 6

(제주일보: 2026년 11월 24일)

○ 농작물 재해보험 받기 어렵다-1면

농작물 재해보험 받기 어렵다

브로콜리·양배추 곰팡이병 피해…보험사서 인정 안해

〈검은무늬병〉 〈시들음병〉

어제 도의회 농수축위원회서

"농가 관리 소홀로 떠넘겨" 지적

지난 10월부터 잦은 비날씨로 곰팡이균 등의 확산으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재해보험을 가입해도 보상을 받는 것이 까다로워서 농민들이 울상이다.

제주기상청에 따르면 10월 제주지역 강수량은 275.5㎜로 평년(91.6㎜)보다 약 3배나 많았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례적인 가을비로 도내 전체 콩 재배 면적(4229ha)의 80% 이상에서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도내 콩 재배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48.7%다. 그런데 재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호우·냉해 등), 야생동물 피해, 화재는 기본적으로 보장을 하되, 일반적인 곰팡이균 피해는 보상 대상에 제외됐다.

비 피해는 집중호우 조건(24시간 누적강수량 80㎜ 이상)을 충족할 때만 보상한다. 최근 잦은 비날씨로 브로콜리는 '검은무늬병', 양배추는 '시들음병'이 확산됐지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위원회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한경·추자면)은 23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웬만한 농가마다 재해보험을 가입했지만 최근 브로콜리와 양배추의 곰팡이병 피해와 관련, 보험회사에서 '재해'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며 "제 때 방제를 하지 않아서 곰팡이병에 걸렸다며 농가의 관리 소홀로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월에 이어 11월에도 비가 계속 내려서 농민들은 농약을 살포하지 못했는데도 보험회사는 농가 탓으로만 피해 발생 원인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준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농작물 피해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농가의 이익이 우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며 "품목별연합회에서 양배추는 16억원을, 브로콜리는 5억원의 자조금을 조성한 만큼 피해 농가에 우선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제주도는 브로콜리는 피해 농가 당 20만원의 방제비용을 지원하고, 통합 마케팅으로 600톤을 1kg당 600원에 매입, 가격 안정에 나선다.

좌동철 기자

11. 24.
제주일보 1

(제주일보: 2026년 11월 24일)

○ 엘리뇨 영향 올 겨울 따뜻하고 눈・비 많다-4면

엘니뇨 영향 올 겨울 따뜻하고 눈·비 많다

1월은 기온 변화 커 일시적 강추위 예상…오늘 낮부터 추위

올겨울 제주지역은 평년보다 대체로 따뜻하겠지만 내년 1월에는 북극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일시적으로 강추위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 강수량도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제주지방기상청은 23일 발표한 '2026년 12월~2027년 2월' 기상 전망을 통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제주지역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12월은 따뜻하고 스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평균기온이 평년(7.9~8.9도)보다 높을 확률이 50%로 예측됐다.

특히 내년 1월에는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평년보다 기온이 대체로 높은은 가운데 바렌츠-카라해 해빙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찬 공기가 유입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를 지나면서 눈구름이 발달하면 눈이나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올겨울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된 이유는 강한 엘니뇨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태평양의 바닷물 온도가 평소보다 높아지는 현상으로, 우리나라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는 데 영향을 준다.

겨울철 강수량도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은 각각 40%, 평년보다 적을 확률은 20%다.

한편 제주지역은 24일 낮부터 25일까지 평년보다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24일 새벽부터는 서귀포시 남부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로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김문기 기자

11. 24. 제주일보 4

(제민일보: 2026년 11월 24일)

○ 브로콜리 가격 하락에 수급안정 대책 추진-2면

브로콜리 가격 하락에 수급안정 대책 추진

(사)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가 가격 하락세를 보이는 2026년산 제주 브로콜리의 시장가격 지지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수급안정 대책을 확대 추진한다.

연합회는 최근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에서 제주브로콜리연합회와 농협경제지주 제주본부, 지역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급안정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통합마케팅과 가공사업 등 대책을 논의했다.

11. 24.
제민일보 2

18일 기준 브로콜리 평균 경락가격은 8kg 상자당 1만9027원으로 평년 같은 기간 2만5851원보다 26.4% 하락했다. 육지부 출하물량 증가와 제주산 조생종 출하 시기 앞당김에 따른 초기 물량 집중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2026년산 제주 브로콜리 재배면적은 1100ha로 전년보다 9.0% 증가하고, 생산 예상량도 1만3338t으로 8.8%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연합회는 오는 23일부터 통합마케팅 수급안정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지원 물량은 600t으로 지난해 457t보다 31.3% 늘었으며, 사업비 3억6000만원을 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지원한다. kg당 지원 단가는 600원이다.

지원은 조생종 출하가 집중되는 1단계(11월 23일~12월 31일)에 200t, 중·만생종 주출하기인 2단계(2027년 1월 1일~2월 28일)에 400t으로 나눠 진행한다.

제주브로콜리연합회는 자조금 1억원을 활용해 농가당 최대 20만원의 약제비도 지원한다. 농가의 방제 부담을 줄이고 병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김봉철 기자

(제민일보: 2026년 11월 24일)

○ 비움의 농법으로 억대 농가 등극-9면

청출어람, 나도 억대 농가

감귤 명인 교육생 이은화 레드향 농가



비움의 농법으로 억대 농가 등극

막막한 레드향 농사, 명인 교육 전환점 돼

건강한 토양 위해 '초생재배' 실천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꾸준한 관찰이 관리의 시작



감귤 명인 교육을 통해 억대 농가에 등극한 이은화씨. 김법수 기자



오창훈 레드향 명인(사진 왼쪽)과 이은화씨가 레드향의 생장 상태를 살피고 있다. 김법수 기자

2019년 농가들의 추천과 감귤 관련 기관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서귀포시가 선정한 감귤 명인은 일반 농가 대비 최대 10배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며 제주 감귤의 트렌드를 선도 해왔다. 더불어, 많은 세월 공들여 축적해온 고품질 재배 비법과 데이터 등을 지역의 감귤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고소득 농가 육성을 위한 '억대 농가 육성 전략사업 교육'을 통해 아낌없이 농가들에게 전수해 주고 있다. 이들의 교육과 기술 혁신을 통해 성공적인 농업 경영을 하고 있는 교육생들을 만나 억대 농가 대열에 합류한 비결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전환점이 된 명인 교육

감귤 명인(오창훈 레드향 명인)의 교육생인 이은화씨(조맹이농장)는 한경면 청수리 소재, 2000평(6612㎡) 규모의 하우스 시설에서 레드향을 재배 중이다.

레드향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만감류로 꼽히며 최고의 맛을 자랑하지만 재배가 가장 까다롭고 농가의 관리 수준과 상태에 따라 상품성과 소득 차이가 크게 발생해 어떤 품종 보다도 많은 세심함과 성실성이 요구되는 [illegible]

11. 24.

제민일보 9

하우스 시설을 인수하며 6년 전 처음 농사를 시작할때는 비가림은주 감귤이 심어진 상태로 당시 하우스 안 과원은 화학 비료가 너무 많이 뿌려져 땅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으며 토양의 숨통이 완전히 막혀 있었다. 죽어가는 땅에서 나무가 제대로 자랄리 만무했고 감귤을 생산하는데 한계가 많았다. 이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도 당장의 수확보다는 죽어가는 땅을 살리는 것이 시급했다.

그녀는 "땅을 살리기 위해 토양개량의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가 비가림 감귤로는 턱없이 부족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며 처음 농사를 지을 당시를 회상했다. 고민 끝에 땅을 근본적으로 살리면서 소득을 안정적으로 뒷받침 할수 있는 고부가가치 작목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해 레드향을 선택했다.

하지만 레드향은 일반 노지감귤보다 재배 환경이 더욱 민감하고 열과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품종이기에 재배 기술 습득이 급선무였지만 제대로 배울 곳이 없어 초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녀는 "온도, 물 관리, 비료, 당도와 산도 등 레드향 재배의 필수 요소들에 대해 주변 농가들에게 조언을 많이 구했지만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 갈피를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만큼은 실패해서는 안된다는 집념으로 재배 기술 습득을 위해 열심히 발품을 팔며 동분서주 하던 중에 우연히 서귀포시청 감귤유통과에서 주관하는 감귤 명인 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재배 기술을 받을 수 있는 교육생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망설임 없이 2023년에 교육생으로 참여했다.

이은화씨는 "감귤 명인 교육이 농사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됐다"고 말했다. 그녀는 "감귤 명인 교육은 원론적인 이론에 그치지 않고 바로 본인의 과원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형 교육으로 세밀한 재배 노하우까지 아낌없이 가르쳐주고 설명해 주기 때문에 마치 흩어져 있는 조각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다. 레드향 재배의 두려움이 자신감으로 바뀌는 소중한 시간이 된 것이다.

△수확보다 좋은 열매에 집중

그녀는 고품질 레드향 생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을 건강한 토양이라고 꼽았다. 이씨의 농장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풀과 함께 키우는 '초생재배'를 실천 중이다. '초생 재배'는 과수원 바닥의 풀을 제거해 흙을 드러내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풀을 적절하게 키워 토양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토양을 보호하고 지력을 높이는데 용이한 재배 기술이다. 또 토양 표면의 수분 증발을 줄여 여름철 지표면의 온도 상승을 완화해 주고 유기물 공급에도 유리하다.

이은화씨는 미생물 제제를 활용해 토양 미생물의 활동을 도와 땅의 힘을 기르는데 초점을 맞춰 재배를 하고 있다. 그녀는 "건강한 땅이 맛과 향이 풍부한 레드향을 키우는 바탕이라는 믿음이 제 농사의 뿌리"라고 밝혔다.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는 이상 기후로 열과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레드향의 열과는 재배 환경이 조금만 맞지 않으면 더욱 쉽게 발생하기에 예방을 위해 세심한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이은화씨도 정성껏 키운 과실이 터지는 열과 피해 때문에 가장 마음고생이 심해 시름에 잠겼었다. 그러던 중 새순부터, 꽃과 열매까지 자켜본 과일이 갈라질 때면 무엇을 놓쳤는지 계속해서 돌아보기 시작하며 다시 마음을 부여잡았다. 그렇게 해서 얻은 해답이 이른바 '비움의 농법'이다.

즉, 수확량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씨는 "나무가 감당할 만큼만 열매를 남기도록 적과를 철저히 한 뒤로 열과 피해가 확연히 줄고 과실 크기와 당도가 좋아졌다"고 밝혔다. 그녀가 선택한 '비움의 농법'으로 열과 피해는 물론 레드향 재배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가기 시작했다. 여기에 여성 농부로서의 세심함이 더해져 그녀의 재배 실력은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갔다.

이씨는 "급변하는 기후환경 속에서 물 관리는 기록과 관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와 올해의 기온, 관수량 등을 비교하고 나무와 토양의 상태를 살펴 물의 양을 조절해 달라지는 기후에 맞춰 농장에 맞는 관리 자료를 농사를 시작한 해부터 현재까지 한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데이터를 쌓고 응용하고 있다.

또, 병해충 관리를 위해 피해가 커지기 전 징후를 미리 발견하는 예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는 꾸준한 관찰이 관리의 시작이라고 생각해 트랩설치와 수시 관찰로 병해충 발생 여부를 살피고 농장에 바람이 잘 통하도록 통풍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녀는 고당도·고품질 레드향 생산의 핵심으로 기본을 지키는 정성과 욕심을 내려놓는 결단력을 강조한다. 이씨는 "건강한 토양을 가꾸고 나무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는 정성에 적정 작과를 실천하는 결단이 더해져야 한다"며 "수확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좋은 열매를 키우는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저하지 말고 두드려야

이은화씨는 건강한 땅에서 정성껏 키운 정직하고 맛있는 레드향 생산에 농사의 가치를 두면서 판매한 상품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더해 끝까지 책임을 다해왔다. 이런 점들에 공감한 소비자들이 재구매가 지속되면서 탄탄한 직거래 고객층으로 전환된 것이 억대 농가에 오르는데 밑거름이 됐다.

이씨는 교육을 수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창훈 명인과 함께 교육생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수상한 레드향 농부들'이라는 모임을 결성했다. 그녀는 "서로의 농장을 돌아보고 유통과 병충해 등 농사 전반에 대한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해 활동하다 보니 해마다 집단지성이 발휘돼 교육생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이 만들어 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은화씨는 "레드향은 고소득 품종은 맞지만 꾸준한 노력과 의지, 많은 지식이 필요해 결코 쉽지 않다"며 " 레드향 농사에 막막함을 느끼는 농가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서귀포시청 감귤유통과에서 운영 중인 명인 교육의 문을 꼭 두드려 보라고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명인 교육은 행정의 농가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명인 선생님들의 아낌없는 기술 전수, 교육생들의 학습 공동체 네트워크 형성 등이 합쳐져 농가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강조했다. 김법수 기자

(제주매일: 2026년 11월 24일)

○ “어떤 귤을 좋아하세요?” …과일에 취향을 입히다-5면

“어떤 귤을 좋아하세요?”…과일에 취향을 입히다

[제주의 잠재력을 깨우다, 자원에 혁신을 더한 로컬기업] ①귤메달





“어떤 귤을 좋아하세요?”

많은 소비자들의 답변은 아마 ‘당도가 높은 귤’일 것이다. 하지만 로컬 브랜드 ‘귤메달’은 더 다양한 답을 기대하고 있다. 제주 감귤에서도 개인의 취향을 찾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유니클로·구달 등과의 협업을 통해 MZ세대들에게 눈도장을 찍은 귤메달은 ‘감귤 티셔츠’ 등 디자인적 요소로 주목받고 있지만 감귤의 유통·가공·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이다. 요즘 같은 노지감귤 수확 시즌이면 대표가 직접 농가들을 찾아 귤을 직접 선별하고 매입한다. 현재 귤메달은 청과 판매 수익이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단맛만 귤이 아니다” 17종 테이스트 노트 개발
유니클로와 도쿄 백화점 뚫은 감귤계 파격 반란

조부 때부터 일궈온 귤 농가에서 나고 자란 양제현 귤메달 대표는 농장에서 판로를 찾지 못해 귤을 버릴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는 귤을 먹고 소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정작 귤을 팔 수 있는 기준은 몇 가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양 대표는 “한 해 농사지은 귤은 크기·겉모양·당도로 평가받고 선물 상자에 담을 때 그것들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하지만 즙을 짜서 마시거나 음식에 곁들일 땐 향과 산미가 중요할 수 있다. 농부는 그 차이를 아는데 소비자는 그걸 맛보거나 그것을 알 기회조차 적다”고 설명했다. 그가 아는 감귤의 가치를 정작 소비자들이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귤메달 브랜딩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 중심으로 공급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 17개 시트러스 품종에 당도·산미·바디감을 시각화한 ‘테이스트 노트’를 부여한 것 역시 소비자들이 그저 달기만 한 귤이 아니라 자신의 취향에 맞는 감귤 품종을 알고 직접 찾게 하기 위해서다.

양 대표는 “소비자들은 기본적으로 그저 맛있는 귤을 먹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큰데 그것에 대한 정리가 부족하다고 느꼈다”며 “고객들과 얘기해보면 저번에 맛있게 먹었던 게 카라향이었는지 천혜향이었는지 기억을 잘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취향에 맞는 품종을 찾고도 정작 다음 해가 되면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이다.

소비자 인식 개선에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했다. 양 대표는 우선 소비자들이 지금껏 자신의 취향대로 귤을 소비하고 있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다. 여기서 귤메달은 일종의 포모(FOMO) 심리를 활용했다. 다양한 선택지들을 주고 ‘내가 그동안 정말 맛있는 귤을 못 먹어본 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들면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기회비용에 대해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던 감귤 품종의 다양성에 소비자들이 한 발짝 다가갈 발판을 마련해준 셈이다. 여기에 다양한 협업 등을 통해 ‘재미’까지 추구한 결과, 귤메달은 자사 제품들을 패션·F&B 영역의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로 탄생시킬 수 있었다.

현재 귤메달의 목표는 감귤을 겨울에만 소비되는 과일이 아니라 식재료의 하나로 확장시키는 일이다. 그리스의 올리브나 이탈리아의 토마토처럼 지역 주민의 일상에서 연중 내내 소비돼야 산업이 지속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양 대표는 “저희 할머니는 워낙 귤을 좋아하셔서 까만 귤잼을 만들어 드시곤 했다”며 “청과로 소비하며 당도만 따질 것이 아니라 당도 낮은 것들도 이렇게 식품으로 다양하게 소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해외 사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9월 귤메달은 일본 도쿄 니혼바시 미쓰코시 백화점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했다. 양 대표는 “귤은 해외에서도 익숙한 과일이라는 점에서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본 팝업에서 가장 보여주고 싶었던 건 귤을 잘 아는 사람에게도 제주의 귤은 새로울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제주 산지에서 생산자들과 바로 얘기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자부심이라는 양 대표는 아직 감귤로 하고 싶은 일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청과’하면 생각나는 브랜드가 없다”며 “일본의 딸기나 필리핀의 우베처럼 제주 감귤이라는 원물 자체를 브랜딩해 나가고 싶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송정은 기자

11. 24. 제주매일 5

(한라일보: 2026년 11월 24일)

○ 제주시 노지감귤 소비지 직거래 안간힘-1면

제주시 노지감귤 소비지 직거래 안간힘

전국 농협 방문… 유통단계 줄이고 판로 확대

제주시가 노지감귤 판로 개척을 위한 소비지 직거래 확대에 나선다.

시는 본격적인 노지감귤 출하시기를 맞아 직거래를 통한 유통단계 [illegible]고 판로를 넓히기 위해 11월부터 전국 소비지농협을 방문해 직거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지 직거래를 통해 2025년산 노지감귤 870t(28억원 규모)을 판매했다. 올해는 기존 직거래 협력망을 활성화하고 신규 소비처를 발굴해 직거래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와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난 13일 대구·경북 소비지농협 방문했다. 향후 전국 권역별로 4회에 걸쳐 소비지농협 12개소를 방문해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특히 방문 기간에는 소비지별 노지감귤 구매 수요와 공급 가격 등을 논의하고, 기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노지감귤(11~12월), 만감류(1~4월), 정예소득작목(5~10월) 등 품목별 출하시기에 맞춰 소비지 연계 판촉행사를 추진한다. 온라인 직거래몰 ‘탐나는장터’를 활용해 온·오프라인 판매도 확대할 방침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11. 24. 한라일보 1

(한라일보: 2026년 11월 24일)

○ 관광・농업・상권 동반 부진…제주경제 '경고등' -1면

관광·농업·상권 동반 부진… 제주경제 '경고등'

내국인 관광객 감소폭 확대… 11월, 전년비 15.8%⬇
출하 시작된 브로콜리 등 월동채소류 가격 약세 뚜렷
3분기 일반상가 공실률 10.6%… 중앙사거리는 17.0%

제주 관광시장의 핵심 수요층인 내국인 관광객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전체 관광객 누적 증가율이 0%대로 하락했다. 제주경제를 떠받치는 관광산업의 위축과 함께 출하가 한창인 감귤과 막 출하가 시작된 월동채소류 가격도 약세를 띠고 있다. 관광객 감소와 함께 1차산업 부진으로 도민들의 소비 위축 우려도 커지는 가운데 도내 일반상가 공실률까지 상승하면서 제주경제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23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11월 들어 22일까지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66만3000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관광객은 22.7% 증가한 15만3000명이 방문했지만, 내국인 감소폭이 커 전체 관광객은 81만6000명으로 10.5% 줄었다. 이는 올해 월별 관광객 감소율 중 가장 컸던 지난 10월(-9.3%)보다 더 확대된 것이다.

11. 24. 관광객 감소폭이 갈수록 … 올해 누적 관광객 증가율 … 한라일보 1

도 22일까지 125만1만4000명으로 0.7%에 그쳤다. 현재와 같은 감소세가 이어질 경우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관광업과 함께 제주경제의 또 다른 축인 농업 현장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제주가 전국 생산량의 80%가량을 차지하는 콩나물용 콩은 수확철인 10월 중순 이후 20일 넘게 이어진 비 날씨로 곰팡이병과 수발아 피해가 겹치면서 재배면적 422.9㏊ 가운데 70%가량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메밀과 녹두 역시 비 피해가 심각해지자 제주도는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어업재해대책법상 농업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했고, 농식품부는 현장 확인 후 23일 농업재해로 인정했다.

감귤은 지난 9월만 해도 올해 당도가 높고 품질이 역대 최고 수준일 것으로 기대됐지만, 10월 중순 이후 잦은 비 피해를 피하지 못했다. 과습으로 감귤이 나무에서 썩는 수부증 피해가 과수원마다 발생해 10~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라는 이유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면서 농가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온주감귤의 11월 1~23일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은 5kg당 1만100원으로,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2024년과 2025년 11월 평균가격인 1만1300원, 1만2400원보다 각각 10.6%, 18.5% 낮게 형성되고 있다.

감귤 농업인들은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에 대비해 가입하는 것이 농작물재해보험인데, 한 달 중 20일 넘게 내린 비로 감귤이 나무에서 썩는 피해를 봤는데도 보상하지 않는 보험 약관은 문제가 있다"며 현실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출하 초기인 제주산 브로콜리도 생산량이 1만3338t으로 지난해보다 8.8%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곰팡이병의 일종인 검은무늬병이 확산하고 있고, 이달 16일 이후 서울가락시장 평균 경락가격도 8kg 기준 1만3000~1만9000원 수준으로 평년보다 30% 가까이 떨어져 농가를 애태우고 있다.

제주경제의 어려움은 밭작물과 감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주요 상가에는 올해 '임대' 표시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제주지역 소규모·중대형 상가를 포함한 일반상가 공실률은 10.6%로, 2024년 3분기(6.8%)보다 3.8%포인트(p) 상승했다. 2년 전 100개 상가 가운데 7개 안팎이 비어 있었다면 현재는 10개가 임대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제주시 원도심 중앙사거리 상권의 공실률은 2024년 3분기 8.8%에서 올해 3분기 17.0%로 8.2%p 상승했다. 서귀포 도심은 8.8%에서 11.3%로, 광양사거리는 10.1%에서 12.1%로 각각 높아졌다.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낮았던 노형오거리도 2.7%에서 7.7%로 5.0%p 상승하는 등 원도심과 신도심을 가리지 않고 공실이 늘고 있다.

특히 내국인 관광객은 숙박업소와 음식점, 카페, 소매점 등의 주요 소비층이라는 점에서 감소세가 장기화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외국인 유치 확대와 함께 내국인 관광 수요 회복, 관광 소비의 지역 상권 유입 등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문미숙기자

(한라일보: 2026년 11월 24일)

○ 양파 모종 심기 분주-3면



양파 모종 심기 분주 23일 제주시 신촌리 한 농경지에서 인부들이 양파 모종을 심는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한라일보: 2026년 11월 24일)

○ 제주 콩 등 수발아・곰팡이 피해 농업재해 인정-6면

제주 콩 등 수발아·곰팡이 피해 농업재해 인정

위성곤 지사 "농림축산식품부 현장 점검 후 피해 인정"
도, 재배면적 70%가량 피해 추정… 23일부터 피해 접수

속보=수확기 잦은 비로 인해 수발아와 곰팡이 발생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제주지역 콩과 메밀, 녹두 등 식량작물이 농업재해로 인정됐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잦은 비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제주시 애월읍과 서귀포시 안덕면, 대정읍 지역에서 합동점검을 실시, 콩 등 식량작물 피해 상황과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고 농업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8일 농식품부에 이번 피해를 농업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건의했다.

문대림 국회의원도 제주지역 콩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재해 복구비 지원과 생계비 지원, 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등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어진 잦은 비와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인해 콩과 메밀, 녹두 등 식량작물의 수확이 지연돼 수발아와 곰팡이 발생 등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작물별 수확·작황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재배면적의 70% 정도인 콩 1495ha, 메밀 1132ha, 녹두 185ha 등 총 2812ha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23일부터 읍·면·동별로 농가별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현장 점검과 피해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농업재해대책심의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국비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위영석기자